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95년도 제2학기 장학금 지급

93명에게 5,800여만원

오늘 저녁 찬양예배후 장학금 전달식 가져

도 서장학회(회장 김의철 장로)는 95년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지급하게 되는데 93명에게 5,814,000원이다.

장학금은 신학원 장학생, 소석 장학생, 충현장학생, 위탁장학생(지명, 무명) 및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추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랑의 장학생으로 구분한다.

95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 전에 본당 지정된 좌석에 미리 나와 준비해야 한다. 또한 1학기에 이어 계속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1학기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보류된다.

이번 장학생에는 신학원생 6명, 대학생 47명(충현사랑의 장학생 10명 포함), 고등학생 22명, 중학생 17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신학원 장학생
이준경 남상범 박노철 나길수 박성자 오무현
2. 소석장학생
배지은 천성민 한창훈 박지연 양민욱 박태진 이삼열 박윤경 최지연 송혜란 최정락 이문자 동현정 박명숙 김경성 문근식
3. 충현장학생
신준성 박경민 황선희 강영림 손지영 안명철 전진배 김형일 박희성 채연실

김지영 최은정 오화진 김옥경 신혜령 박은영 김영림 박경민

4. 지명위탁 장학생
도유정 유성렬 박재범 임성희

5. 충현장학생
최형원 김현경 박원영 김봉선 구혜정 윤철중 이민욱 강신미 이재기 신병철 교세인 김영민 임지성 정지현 김신념 안의정 김요셉 조혜영 안명혜 김진세 최면선 이은정 정시은 김한석 서한희 박병규 김형선 이승봉 염혜숙 황인욱 김선미 김예라 최지영 유제근 나문주 황순용 이우현 이영환 장혜영

6. 충현 사랑의 장학생
한예녹 박태혁 장은선 엄정환 김선덕 우송주 김연화 신성일 박현경 장재호

제2교육관 위한 건축헌금, 9월 24일 주일 I, II, III, IV부 예배시

교회는 오는 9월 24일 주일 I, II, III, IV부 예배시에 제2교육관 건축을 위한 건축헌금을 작정하기로 했다. 각 성도들은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였다가 작정하면 되는데 형편이 허락하는대로 일시불이나 분할하여 헌금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여 뜻과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제5차 세례식 거행

금년들어 제5차 세례식이 지난 9월 1일(금)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베풀어졌다. 이번 세례식에는 학습 44명, 세례 80명, 유아세례 25명, 입교 12명, 개종 5명에게 베풀었다. 이날 세례식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 외에 성봉환, 정광욱, 박정규, 장우천 목사가 함께 했다.

세례식에는 많은 친지들이 참여하여 세례받는 자들에게 꽃이나 선물을 주며 축하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금주부터 대심방 실시

수요 구역장 공부,
금요 구역예배, 금요집회도

금주부터 1995년 하반기 대심방이 일제히 시작된다. 각 교구의 계획에 의거 각 교구별로 실시되는 대심방은 11월 하순까지 계속된다. 또한 하반기를 맞아 쉬었던 수요부 예배 후 구역장 공부와 금요구역예배, 금요집회도 금주 수요일(9월 13일), 금요일(9월 15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모든 일들을 정리하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5회 충현올림픽 제5회 충현올림픽 표어 당선작 결정 “뛰자 퍼치자 예수사랑”

제5회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분과에서는 그동안 공모했던 충현올림픽 표어공모를 마감하고 제1-2교구의 김미자 집사가 응모한 “뛰자 퍼치자 예수사랑”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총 17편의 표어가 응모됐는데 우수작으로는 제12-2교구의 허종호 집사가 응모한 “전도로 봉사로 충현제전”,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현”이 결정됐다.

제4회 국제 컴세미나 기도 제목

9월 20일(수) 부터 ~28일(목) 까지

1. 강사와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2. 회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전파된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회교권 지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주소서.
3. 초청된 이집트(28명), 수단(4명), 터키(5명) 목회자들이 은혜와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게 하옵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복음화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 선교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4. 컴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선교의 많은 장애물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회교권 복음화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5. 금번 컴세미나를 통하여 충현의 가족들에게 세계선교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선교의 불을 붙여주소시고, 좋은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축복을 주소서.
6. 컴세미나 기간 동안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불타는 소명의식을 주소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7. 회교권 지역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소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소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주소서.



교회설립 42주년 감사음악예배

지난 주일은 교회설립 42주년을 맞는 주일이였다.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가브리엘찬양대가 비발디의 대영광송(GLORIA)을 연주하며 감사음악예배로 드려졌다. 42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박수로 찬양대의 연주를 격려하는 모든 교우들 속에 넘쳐났다.



충현단

● 시편 강해 3 ●

두려움인가 신앙인가

(시 3:1-8)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살든가 아니면 신앙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려움인가, 신앙인가?' 하는 제목으로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 말씀의 배경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보면 아주 잘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도망을 다니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 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졌고 많은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다윗왕이 당면했던 문제가 보통 위기가 아닌 굉장한 문제였던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주님께 부르짖은 것과 비슷합니다(막 4:38, 39).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그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시편 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1절과 2절에는 그 당시 다윗이 당면했던 딜레마,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3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에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즉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다윗이 당면했던 딜레마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점점 증가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벳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전에 읽은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압살롬에게 갔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모든 백성들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준 것은 다윗의 심복이요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벳까지도 그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약점,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당한 것은 원수들의 숫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일어나 나를 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로 이 다윗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가장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비꼬임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사탄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냥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화전(火箭), 불 화살을 쏘는 이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쏜 불 화살을 맞으면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정말 가슴이 복받치고 미어지는 그런 환경을 우리들에게 가져다줍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막느냐, 바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라 그 말입니다.

3. 하나님의 해답은

다윗은 그의 기도를 당면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한 그의 기도는 거기에서 멎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하고 시작하는데 원문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압박하고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다시 말하면 그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해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환경을 보지 마세요. 외형적인 것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보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에게서 생명을 보호해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을 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질 때에, 남에게 부채를 졌을 때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를 들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승리의 결과로 얻게 되는 영광과 자랑스러움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둘째로 4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사탄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3:15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사탄이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주님이 이겨 놓은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응답받기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통성으로 외쳐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보통으로 자기 혼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냥 점잖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데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5, 6절에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누워서 자고 깨었다는 그 말은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시 127:2). 그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는 그것을 믿고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수만명의 군대를 가지고 일어나고 아히도벳까지 그를 배신하고 따라가고 온 백성이 다윗에게서 부터 떠나가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 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일어나세요. 주무시지도 마시고 일어나세요. 두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과거의 그의 체험 속에서 그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는 것을 그는 체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탄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은 여자의 후

손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사탄이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주님이 이겨 놓은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거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요 16:33).

4. 결 론

3장 8절은 결론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인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핵심 교리가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 믿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인, 현세적인, 외형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때로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에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해주시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앞에 내어놓고 다같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2차 교역자 성지연수를 마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김 찬 곤
(목사, 13교구 지도)

교역자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성지연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정들이 1차로 다녀온 팀들과 비슷했지만 1차에서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핸드북도 만들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훨씬 안정된 상태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유익하고 즐겁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성지연수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임원진들의 가슴은 다소 무거운 것도 사실이었다.

“에베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여……!”

말없는 묵상으로 그러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부담감을 마음에 실어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돌아올 땐 훨씬 성숙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믿음으로 다짐해 보았다.

18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을 떠난 대한항공 801호기는 다음날 오전 8시경에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준교 선교사님 내외의 따뜻한 영접 속에 후끈거리는 이집트의 공기를 맛보게 되었다. 18시간의 비행은 무척이나 고단한 여행이었지만 28명의 모든 동역자들의 얼굴에 다시 호기심과 기대감이 생기며 떠올랐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우리에게 주는 첫인상은 ‘그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구나’였다. 그렇게 찬란했던 문화와 힘을 가졌던 고대 이집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는 매우 찬란했지만 그들의 삶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말씀이 없는 삶의 결과를 보게 되었다. 단순히 무덤이 많고 죽음의 도시나라는 것은 이 나라를 외형으로만 표현하는 것이었다. 도시 중간 중간에 마련되어있는 공동묘지들은 그들의 문화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 큰 문제는 역대왕들을 섬기기 위하여 엄청난 유적들(피라미드와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한 이집트의 수호신인

스핑크스)이 구축되어져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를 흘렸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바로왕의 학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하였던 출애굽의 여정은 너무나 큰 감동으로 우리를 자극하였다. 가도가도 끝없



는 광야!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와 바다와 돌산. 어떻게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가를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먼 곳에서는 조롱하였지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이미 40년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모세는 그 높고 가파르고 험난한 돌산인 시내산을 8번씩이나 올랐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를 볼 수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읍시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다.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국경을 넘었

다. 1분도 걸리지 않는 국경을 넘는데 1시간가량이 소요되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력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김주경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열정으로의 인도였다. 이스라엘 최남단인 에일랏에서부터 최북단인 헬몬산까지 온종일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않는 것임을 다시한번 고백할 수 있었다.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여지기를 고백하였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웬지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았다. 유적지로 바뀌어져 있는 기념교회들 앞에서 누군가가 기념교회에서는 기념사진만 찍으면 된다고 우스개소리를 했다. 그 말이 모두 웃었지만 그냥 웃어버리기엔 가슴에 안타까움이 고여왔다.

주님의 발길이 닿으셨던 그 정겹고 감격스런 장소가 대부분 회교사원인 ‘모스크’로 아니면 카톨릭이나 콥교회들의 구조를 하고 있어 가슴 아팠다. 기혼생에서 시작된 히스기야왕의 물이 불어날 수도를 극적으로 통과하여 실로암 못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세 사람의 목사들이 있었다. 이 사실은 웃지못할 충격이었고,

감동이었다. 또한 바산골관고원의 그 광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모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리라고 다 짐하였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터키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흔적들이 지금은 자취를 감추어 버린 이유를 찾아보았다. 회교사원들의 광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철저한 부정은 회교국가가 아닌 터키의 강력한 대항이었다. 김원호 선교사님의 회교회를 방문하면서 회교도들의 난동을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역사를 보여달라고 심령부흥회(?)를 가졌으며, 이즈밀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소방은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였다.

비록 가난하고 고요한 것 같았지만 주님의 도우미 손길이 함께 할 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방은 선교사님의 뜨겁고 활기넘치는 열정은 모든 일행들에게 귀한 감동으로 찾아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시대의 새로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훈련하고 계심을 확인하였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지연수의 마지막 코스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독일을 찾아 반나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롭게 무장해야 할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였다. 육호기 선교사님 내외의 배웅 속에 독일을 떠나면서 이 12박 13일의 여행의 목적을 확인하였다. 고국으로 향하는 모두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게을렀던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 너무나도 바쁘고 복잡한 일정 속에서 숨쉴 틈도 없는 듯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귀한 삶의 흔적과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복음에 빛난 자된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할지를 이젠 정말 확실히 알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가야하겠나이다. 복음의 깃발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닮으시!!!

◀ 히브리대학에서 예루살렘전경을 배경으로

이런 일은 고집시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과 호출기의 스위치를 끄시다

예전에는 만화나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던 일들이 오늘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동전화이다. 또한 최근에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의 모든 젊은이들의 허리띠에 차고 다니는 호출기(삐삐)가 그것이다.

호출기는 바쁜 업무로 주로 외근을 하는 사람에게 긴급한 연락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학생, 중·고등학생까지도 이를 사

용하고 있다. 이는 긴급한 용무라기 보다는 서로의 연락수단 나아가서 감정의 표현 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되는 핸드폰이나 호출기가 늘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언제 어디서나 ‘삐삐삐……’하면서 울어대는 호출기의 신호음은 때로 매우 당황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류 음악가가 연주하는 연주회장이나 중요하고 긴급한 회의석상이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이 그런 경우이다. 진지하고 집중해야 될 자리에서 난데없이 울어대는 호출기의 신호음은 호출기 사용자 본인이나 참석자 모두를 당황하게 한다.

그래서 요즈음 외국의 일류 식당에서는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호출기나 핸드폰을 입구에서 보관하도록 하기도 한다. 연주회장에서도 입구에서 그런 안내를 하고 있기도 하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예배시간에 전후 좌우에서 울어대는 호출기의 신호음이다. 찬양대의 찬양이 막 끝난 후에, 대표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위에서 ‘삐삐삐……’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집중하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된다.

우리 교회는 “신령한 예배”라는 것을 교회의 5가지 목표 중에 제일 첫번째로 놓고 있다. 즉 “바른 예배, 신령한 예

배, 참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예배하도록 온 교회가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예배시간 10분전에 참석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정돈하여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애쓰고 있다.

예배는 이미 예배를 위한 준비부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적 토요일 모임을 피하며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 예배의 준비 가운데 이제는 ‘핸드폰과 호출기’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주일에는 안가지고 다닌다면 가장 좋은 일이고 가지고 다녀야 한다면 최소한 반드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과 호출기의 스위치를 끄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상식 차원에서의 예의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토·막·소·식

- ◆ 유치부는 9월 24일에 열매과, 10월 1일에 꽃과가 반별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갖는다.
- ◆ 초등6부는 안드레초청찬지를 위한 포스터를 공모한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 중등2부는 9월 24일(주일)에 작은 음악회와 초청전도집회로 모인다. 초청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10월 28일 중등1·2·3부 연합으로 펼치는 '시와 찬양의 밤' 행사에 성극부분과 음향, 조명으로 봉사할 사람을 찾고 있다.
- ◆ 고등부의 연극부 마라나타에서는 9월 24일(주일) 오전 11시 봉사관 마르다홀에서 '나르테우스'라는 제목으로 공연한다.
- ◆ 대학부는 9월 23일(토) 성령비전 3차 대회를 갖는다. 학년제의 형식을 탈피 축제형식의 분위기로 대학부에 정착화

실업인전도회에서
구인 구직 알선

실업인전도회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기업이나,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사람과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있다.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연락처는 전화 (☎ 552-8200, 교환 448번)으로 하거나 교육관 112호로 직접 찾아오면 된다.

를 시도하고 있다. 각 학년별, 개인, 중창, 그룹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라고 있다. 시간은 오후 3~5시이며 장소는 메추라기홀과 나사렛홀이다. 대상은 대학부 전 회원과 주위의 젊은 양, 젊은 양, 젊은 양, 보살핌 양 등이다.

- ◆ 새가정부는 9월과 10월에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9월 24일(주일)에는 성경퀴즈대회(요한복음 전장), 9월 30일(토) 야외예배, 10월 1일(주일)에는 성경암송대회.
- ◆ 장년1부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범위는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 장년2부는 성경퀴즈대회를 갖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예선은 9월 17일, 본선은 9월 24일, 시간은 13시 20분이며 장소는 교314호. 대상은 장년2부 전원. 범위는 욥기서 전장.

전도한 학생에게
성경, 찬송가 보급
학원전도회에서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학원전도회에서는 전도한 학생들에게 성경과 찬송가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3~6월)까지 150권을 보급하며 전도에 열심이다. 학원전도회에서는 성경, 찬송가 보급이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7월 이후 전도한 학생 및 대상자 200여명에게도 보급하기로 했다.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아직도 학원전도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연락은 학원전도회 회장 엄복섭 집사(☎ 548-6916)에게로 하면 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주시사 간구하는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신성종 목사 : 11(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14(목) 문화체육부 주최 세미나 참석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해외목회자조정(COME)세미나(9월 20~28일)와 총현올림픽(10월 3일)이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치루어지도록 인도하소서.
8. 각종 재난과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다시는 이와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은 9월 24일, 시간은 13시 20분이며 장소는 교314호. 대상은 장년2부 전원. 범위는 욥기서 전장.

◆ 임마누엘찬양대는 10월부터 지정좌석제를 실시한다. 9월 한달은 준비기간이며 보이지 않는 대원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 새가족양육부에서는 성경읽기, 쓰기대회를 계속 실시중이다. 신약전권을 범위로 기간은 오늘까지. 또한 9월 17일(주일)에는 처벌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연다. 지정곡 102, 234, 388, 455, 168장. 자유곡은 484, 46, 318, 543장.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



깡기메에 중학교 개교,
앗솔로기마 교회당 헌당식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시 103:21-22)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변함 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남방요지사역을 계속하시는 동역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선교회 산하 교육법인(YAYASAN PENDIDIKAN SINDOL NUSANTARA)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중부자바 '깔리송고' 총각 소재 '에파타 후아'(EVATHA HUA)유치원과 '제모입' 총각 소재 '시온 메가르 자야'(SION



MEAKAR JAYA) 유치원교사 건축이 완공되어 준공예배를 드렸습니다. 1995년 6월 27~28일에 걸쳐 지방 유지 및 교육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거행된 동 준공식에서 해당면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건물과 완전한 시설이라고 축하파다 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파타후아' 유치원이 있는 '깔리송고' 총각에는 교회당 건축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유치원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유치원 건물에는 십자가를 높이 달고 교회당 건물을 겸하고 있

습니다. 교회당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들이지만 유치원 건물에 십자가를 달고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는 것이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온메가르자야' 유치원에는 55명의 원아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그들의 자녀를 기독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큰 반발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깡기메 중학교 개교

아시아의 '아프리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이리안자야'는 문명의 침략을 달리는 이 새대에서 아직도 원시생활을 하고 있는 별난 곳입니다. 해발 3천미터가 넘는 높은 산과 늪지대가 삼중으로 가로 막고 있는 그 속에서 '톨리' 계곡을 중심으로 2만여명이 흩어져 살면서 화전을 하며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고, 움막집에서 돼지고기 같이 사는 '다나'족의 총각에는 8개의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4인승 경비행기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곳 같

으면 국민학교 6개만 있으면 중학교를 세워주는 것이 정부의 시책인데 이곳에는 국민학교가 8개가 있어도 아직까지 중학교가 없습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산하 '산돌누산파라 교육법인'의 이름으로 깡기메총각(해발 1천 5백 8십 미터)에 중학교를 설립, 교사를 건축하고 학생을 모집한바, 53명이 등록하였습니다. 1995년 7월 11일(화)

오후 2시 현지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과 원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돌누산파라 깡기메 중학교' 개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군수를 대리한 교육감의 축사에서 군내에 대학교육기관이 없는 데 이를 세워줄 것을 부탁했으며, 카르바가 면장은 그의 축사에서 면내에서 고등학교와 유치원이 없으니 이들 교육기관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구비해야 할 도서들과 실험기구, 7명의 교사와 1명의 사무직원의 봉급 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앗솔로기마 교회당 헌당식

이라안자야의 자아위자야군청 소재지에서 동남쪽으로 50Km지점에 있는 앗솔로기마총각에 교회당을 세우고 헌당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총각은 원래 전통적인 미션을 펼치면서 악신에게 많이 시달려 왔으나 복음을 받으면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서만수 선교사 드림